

1906년~1910년 京鄉新聞 소재 천주가사의 특성과 그 지향

조지형(고려대학교)*

4. 서론

본고는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간행된 『경향신문(京鄉新聞)』 「보감(寶鑑)」 소재 41편 천주가사(天主歌辭)의 성격과 특성을 살피고, 이 시기 천주가사가 보여주는 현실 인식 및 지향(志向)¹⁾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천주가사의 변모 양상을 파악하는 한편, 이 시기 천주교에서 보여준 현실 인식과 사회 활동의 한 면모를 미루어 살펴보려 한다.

주지하듯이 서학(西學) 즉 천주교는 동학(東學)과 더불어 19세기 조선

* 본고는 국어문학회 제46회 전국학술발표대회(전북대학교, 2009.01.3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조언을 해주신 오선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 종교가사는 작자 개인의 문제나 정서를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갈래가 아니라, 교단의 입장이나 교시(敎示)를 드러내는 갈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가사는 개인의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교단의 입장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 종교가사의 범주로 편입될 수 있다. 필자는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가 당시 천주교의 입장과 관심을 일정부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지향(志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회의 민중 종교 가운데 가장 성행한 종교 가운데 하나였다. 서학은 18~19세기 조선이라는 토양 위에서 전개되었고, 민중을 주된 포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성리학적 체계와 질서에 맞서 새로운 사회로 변해가려는 강력한 움직임이었다. 천주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어 정치·사상·사상사적으로 중요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상·종교로서 천주교의 전과 과정 중에 발생한 국문학 유산이 바로 천주가사이다. 그러므로 천주가사는 초기 한국천주교회는 물론 우리 근현대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료라 할 수 있다.²⁾

천주가사는 18세기 후반 이벽(李穰, 1754~1786)의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 정약전(丁若銓, 1758~1816)의 「십계명가(十誡命歌)」를 시작으로 해서, 1850년대 최양업(崔良業, 1821~1861) 신부의 「스향가(思鄕歌)」 등 여러 편의 천주가사가 창작³⁾되었다. 이들 천주가사는 대체로 천주교가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학과 천주교에 대한 변호나 천주교 교리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1886년 한·불조약 이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작가 및 작품의 양적 팽창에 따라 천주가사의 그 내용 및 주제도 다양하게 분기되었고, 『경향신문』이나 『경향잡지』 등의 전문 수록 매체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간 천주가사는 신학적·음악적 측면에서 먼저 연구가 진행되었다.⁴⁾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천주교회나 천주가사에 대한 연구가 마치 천주교 내부만의 문제인 양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여, 제대로 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나친 호교론적 논법이나 일부 영웅주의적 서술 등은 연구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과 관련이 있다.
- 3) 그간 최양업 신부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작품으로는 「사향가」,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 「삼세대의」, 「천당가」, 「지옥가」, 「십계명가」, 「영세」, 「건진」, 「고해」, 「성체」, 「종부」, 「신품」, 「훈배」, 「제성」, 「행선」, 「신덕」, 「망덕」, 「애덕」, 「피약수선가」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①21편 모두가 최양업신부의 저작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김동욱, 김약술, 오숙영, 김옥희), ②「사향가」, 「선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 정도만이 최양업 신부의 저작이라는 견해(차기진), ③모두 개인저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저작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김진소, 이경민) ④「삼세대의」, 「제성」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최양업 신부의 저작이라는 견해(하성래)가 대립하고 있다.
- 4) 오숙영, 「천주교 성가사교-최도마 신부의 성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71.; 김진소, 「천주가사 연구」, 『교회사연구』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김진소, 「천주가

국문학 영역에서의 본격적 연구로는 하성래⁵⁾·이경민⁶⁾의 연구가 있으며, 본고와 관련이 있는 개화기 이후천주가사에 대해서는 본고와 같은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를 대상으로 한 심재근⁷⁾의 연구와 1910년 이후 『경향잡지(京鄕雜誌)』⁸⁾ 소재 천주가사를 대상으로 한 진연자⁹⁾·김중회¹⁰⁾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천주가사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초기 단계의 연구 성과들로 천주가사의 개념과 범주의 문제, 자료소개, 이본연구, 작자 연구, 일부 개별 작품 연구 등에 한정되어 있다. 시기적으로는 천주가사의 발생 시기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최양업 신부의 작품에 대한 연구나 저작 진위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종교 편향의 시각 즉 호교론적 성향을 그대로 노출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이것이 문학 연구가 아닌 종교 연구의 차원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천주가사의 발전 양상을 ‘발생[生]-성장[住]-변이[異]-쇠퇴[滅]’의 과정으로 설정하고 도식화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천주가사의 사적 전개 과정이라는 큰 흐름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연구자들마다 천주가사의 기원이나 시기 구분 및 설정 기준을 바라보는 상

사 사상 연구 시론, 『최석우신부 회갑기념 한국교회사논총』,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최필선, 「초기 한국 가톨릭 교회 음악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9; 조신형, 「조선 후기 천주가사에 관한 신학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1994.

- 5) 하성래, 「천주가사의 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4. 후에 하성래, 『천주가사 연구』, 황석두루가서원, 1985로 출간됨.
- 6) 이경민, 「천주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1997.
- 7) 심재근, 「천주교가사연구」, 『국어국문학연구』8,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2.
- 8) 『경향잡지』는 『경향신문』의 부록 「보감(寶鑑)」이 그 전신이다. 국권이 일본에 탈취당하면서 『경향신문』이 강제 폐간되자, 1911년 1월부터는 『경향잡지』라는 제호 아래 주간에서 격주간으로 복간되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간행한 최초의 종교 잡지로, 신자들에게 필요한 교양과 상식, 특히 정부에서 제정한 법령의 해설 등을 수록, 애국·계몽적인 색채가 짙었다. 특히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마구 제정, 공포하는 각종 법률을 소개하여, 법에 대한 무지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경향잡지』로 제호가 바뀌면서부터는 계몽적인 성격보다는 교리 지식의 전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 9) 진연자, 「천주가사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1992.
- 10) 김중회, 「개화기 천주가사의 세계」, 『현대문학이론연구』2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이한 관점들이 그대로 노출된다.

결국, 이상에서 언급한 천주가사에 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천주가사의 연구가 종교 차원의 연구가 아닌 문학 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주가사 전반에 관한 폭 넓고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기존 연구의 편협함과 특정 시기와 분야로의 쏠림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가사 갈래의 측면과 관련하여 천주가사의 본질적 특성이나 미학은 무엇인지, 천주가사의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개별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천주가사의 사적 전개 과정에 관한 온전한 이해의 시각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에 간행된 『경향신문』 「보감」 소재 41편 천주가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천주가사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장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화기 이후 천주가사의 전개 방향과 변모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시기 천주가사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변모된 것은 무엇인지가 어느 정도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이 시기는 우리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어 가는 다사다난의 격동기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이 시기 천주가사는 또 어떠한 관련 양상을 맺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천주가사가 우리 근현대사와 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갈래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일부 수용하면서, 먼저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의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작품을 살펴보면서 이 시기 천주가사의 지향을 확인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5. 연구 대상 작품 개요

본고의 검토 대상인 『경향신문』 「보감」은 1906년 10월 19일부터 1910년 12월 30일까지 타블로이드판 4면과 국판 8면의 전체 12면의 한글 주간지로 창간된 한국 천주교회의 근대 매체였다.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의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¹¹⁾ 『경향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은 프랑스 신부 드망주(Demange, 1875~1938 한국명 안세화)였는데, 그는 신부인 동시에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치외법권적 지위가 있어 일본의 검열 조치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었다.

『경향신문』은 그 창간 및 발행의 목적을 ‘건전한 가르침의 전파자가 되어 올바른 생각을 일으켜 주고, 진리의 원수들이 출판물을 통하여 퍼트리려는 거짓 지식을 바로잡아주며, 필요하다면 참된 가르침을 변호하기 위함’¹²⁾으로 제시하였다. 당시에 『경향신문』은 천주교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성격이 강한 신문이었지만, 국내의 주요 기사 및 시사문제에 관한 논설과 국내의 소식들을 다룸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었다.

『경향신문』의 부록격인 「보감」은 시사성을 띤 신문기사와는 달리 교리적인 논설, 한국천주교교회사, 중요한 법률 해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천주가사는 바로 이 「보감」에 실려 있었다.

당시 천주교 내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자들에게 근대화의 참된 의미와 개화의 본질을 인식시키려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경향신문』의 여러 사설에서 이러한 논조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11) 서울의 명동성당, 인천의 답동성당 등이 모두 프랑스의 지원에 의해 건축된 것이고, 이후 여러 학교 건립 등도 모두 프랑스의 원조와 도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다보니 일본과 프랑스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는 30년대 이후에는 프랑스 성직자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강제로 추방당하게 된다.

12) Demange의 1906년 8월 27일자 전국 사제들에게 보낸 공문 참조.

수 있다.

춤개화도 있고 거죽기화도 있스즉 기화로 인하여 춤기화를 해로운 거시라 못홀 지니 춤기화의 춤표적이 있서 그 표적을 보면 춤기화가 도흔줄도 알고 거죽 기화의 분간도 알니로다 춤기화는 사름을 온전케 하는 일이니 본디 사름의 사는거시 몸만 살뿐 아니라 공부함으로 요긴흔 학문을 비호고 제 마음을 다스려 의대로 헝헝고 생업에 힘을 써서 몸을 잘살게 함이라 ...¹³⁾

위의 인용문에서 참된 개화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며 개화를 통해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자신의 의지를 다스려서 생업에 충실하고 잘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개화’라는 것이 국가와 민족이 처한 현실에서 매우 긴요한 과제였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경향신문』은 비록 천주교회에서 발간되는 매체였지만, 종교적 색채 일색의 매체가 아니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혼란에 빠지기 쉬운 일반인들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등의 계몽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는 이러한 매체의 지향과 기본적으로 그 궤를 같이 하며, 당시의 시대적 특성이나 교회내의 분위기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아래에 대상 작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고 논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13) 『경향신문』 제62호 1907년 12월 20일자. 시사논설

번호	수록일자	작품명	작자	비고	구분
1	1907.01.25	탄식가			
2	1907.02.01	경축가			
3	1907.02.15	과세가			
4	1907.02.15	대명일가			
5	1907.07.19	탄탄발가			
6	1907.08.15	익원가(哀怨歌)			
7	1907.10.18	근실가			
8	1907.11.22	우성가(愚生歌)		미완	
	1907.12.20			완	
9	1908.01.03	망본국태평가(望本國泰平歌)			
10	1908.05.01	권학가(勸學歌)		미완	
	1908.05.08			완	
11	1908.05.29	九九가			
12	1908.06.19	쥬타령			
13	1908.06.26	보명학교 운동가			
14	1908.06.26	박문학교 운동가			
15	1908.07.24	국문풀납가		미완	
	1908.08.21			미완	
	1908.08.28			완	
16	1908.08.14	권농가(勸農歌) - 양성군수의 권농가	리원철		
17	1908.08.14	권농답가(勸農答歌) - 인민들이 답사흔 노래			
18	1908.10.09	농화농가(農和農歌)	현동녕		
19	1908.11.06	제목없음 1	리용익		
20	1908.11.27	시세를 탄식하는 노래			
21	1908.12.29	익국권학가 1	金相鉉		
22	1909.01.01	익국권학가 2	徐載陽		
23	1909.01.08	애국권학가 3	南相殷		
24	1909.04.30	제목없음 2			
25	1909.05.07	상춘가	김익호		
26	1909.05.14	익국가	리은구		
27	1909.06.11	권면학생가			
28	1909.06.25	경세종(警世鐘)	오지환		
29	1909.07.23	농부의 익국가			
30	1909.08.27	경세종화답(警世鐘和答)	리태호		
31	1909.09.17	성의학교(聖義學校)	최종선		
32	1909.09.24	문명유람가(文明遊覽歌)	김시릴노		

번호	수록일자	작품명	작자	비고	구분
33	1909.09.24	內地 測量歌	敎 鄉 學 校 學 徒		
34	1909.12.03	경세가 1	김요섭		
35	1909.12.24	예수성탄경축가			
36	1910.04.05	경세가 2	박준호	미완	
	1910.04.22			완	
37	1910.05.13	상인가(相愛歌)	김창준		
38	1910.06.03	신문찬양가	최종선		
39	1910.06.10	명도강습찬송가	박요안		
40	1910.07.29	단테가(團體歌)			
41	1910.12.23	예수성탄경축가			

6.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의 특성

조선에 학문으로서의 서학이 전래되어 많은 학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확산되어 갔으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이다. 성호 문하에서 서학과 서교를 두고 대립하는 두 계열의 학자들이 배출되며, 이들은 하나의 학통을 형성한다. 먼저 윤동규(尹東奎), 이병휴(李秉休), 안정복(安鼎福) 등은 서학과 대립하면서 성리학의 이론적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 서고, 이들보다 후배인 권철신(權哲身), 권일신(權日身), 이기양(李基讓) 등은 서학을 적극 수용하면서 성리학의 이론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 섰다. 이들은 서로 서학에 대한 배격론과 옹호론을 펼치면서 치열하게 대립하였다.¹⁴⁾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천주가사가 발생하였다.

이가환의 「경세가(警世歌)」, 이기경의 「벽위가(關衛歌)」 등은 유학의 입장에서 서학과 천주교의 교리를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반면 이벽의 「천주공경가」와 정약전의 「십계명가」는 1779년 주어사강학회를 통해 서학을 종교로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와 서학을 적극 옹호하였

14) 최동희, 『서학에 대한 한국 실학의 반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136~139면.

다. 이후 1850년에서 1860년 사이에 창작된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는 천주교가 민중 종교로 급속히 확산되는 과정에서 교리적 목적에 충실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며, 계속되는 천주교 교난(敎難)¹⁵⁾의 상황에서 굳건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영세」, 「견진」, 「고해」, 「성체」, 「종부」, 「신품」, 「혼배」 등은 천주교의 성사(聖事, Sacramentum)에 대한 교리를 설명한 작품이며, 「천당가」, 「지옥가」, 「십계명가」, 「사심판가」, 「공심판가」 등도 천주교회의 주요 교리와 사후 세계관을 설명한 작품이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 이들 초기 천주가사는 이벽, 정약전, 최양업 등 당시 천주교회의 수장적인 소수의 학자 혹은 신부의 손에서 직접 창작되었으며, 그 창작 목적은 천주교의 전파 과정상의 현실적 요구와 목적에 충실한 것이어서 작품 내용도 천주교 주요 교리 이외의 것으로 확장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1886년 한·불 조약이후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면서 교세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천주교에서는 구한말 개화기의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교회 내적으로 신자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앙적인 목적과 계몽적인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글쓰기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요구를 가사라는 형식을 통해 해결하였다.¹⁶⁾ 또한 이 시기는 국권이 침탈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천주교단에서도 민족이 처한 역사적 현실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면모들을 보여주는

15) 천주교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사옥(邪獄)’·‘박해(迫害)’·‘교난(敎難)’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다. 그런데, ‘사옥(邪獄)’은 성리학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여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규정한데에서 나온 개념이며, ‘박해(迫害)’는 무죄(無罪)한 천주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표현된 용어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옥’이나 ‘박해’ 같은 용어 대신에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교난(敎難)’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 조광, 『조선 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p6. 참조.

16) 가사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추구한 것이 비단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 만은 아니다. 18세기 후반부터 불교가사, 동학가사에서 이미 활용되었던 것이며, 개화기에도 『제국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계몽가사, 사회등가사가 계속 발표되었는데, 효용론적 관점에서 가사를 해당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홍일식, 『한국 개화기의 문학사상 연구』, 열화당, 1980.; 김학동, 『한국 개화기 시가 연구』, 시문학사, 1981.; 박을수, 『한국 개화기 저항시가 연구』, 성문각, 1985.; 조동일, 「가사에서 전개된 종교사상 논쟁」, 『한국 시가의 역사 인식』, 문예출판사, 1993. 참조.

것이 바로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초기 천주가사와 비교하여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작자층의 확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 시기 천주가사의 작자는 교회내의 수장격 지도자인 이벽, 정약전, 최양업 신부 등 소수 몇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작자로 등장한다. 개별 작자들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겠지만,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의 작자 중에는 교회의 최고 지위에 있는 신부 등은 등장하지 않으며, 리원철, 현동녕, 리용익 등 평신도들이 대거 작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작자의 수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가사의 담당층이 확대되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천주가사의 창작과 향유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김시릴노, 김요셉, 박요안 등 천주교 세례명을 실명처럼 밝히고 있는 것을 주목해볼 만하다. 이는 천주교 세례명을 전통적인 자(字)·호(號)처럼 인식하여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 이후 그만큼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내세움에 당당해진 것이라 하겠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표에서 살펴보면 1907년부터 1908년 중반까지 창작된 작품에는 작자가 나타나있지 않고, 이후부터는 작자를 밝히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작품들의 경우,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일제의 억압과 감시에 대한 자기 방어기제로써 작자명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들 작품은 신문사 자체의 논설 혹은 사설의 성격이 짙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굳이 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내용 및 주제의 다양화이다. 기실 이 문제는 작자층 확대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전 시기 천주가사는 천주교의 전파 과정상의 시대적 요구와 목적에 충실한 것이어서 작품 내용이 천주교 교리 이외의 것으로 확장되기에 어려웠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담보된 상황에

서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든지 교회 안팎의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 천주가사는 내용으로 볼 때, ①신앙고백 및 찬송, ②애국계몽, ③우국 및 시세 한탄, ④경세, ⑤학교 설립 등 신문명에 관한 것 등으로 다양해진다. 특히 ①을 제외한 ② ③ ④ ⑤의 내용은 『대한매일신보』나 『제국신문』 등 이 시기 다른 매체에서 보여주는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¹⁷⁾ 이 시기 천주가사가 보여주는 이러한 주제적 특성들은 천주교가 당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입장과 지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차별적인 것은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들은 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천주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통한 종교적인 해결 지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스랑으로 띤즌줄을 어느늬가 쓴홀쇼나
스랑업시 부국강병 아니되니 스랑흐세
스랑스랑 인쥬이인 데일가는 스랑일세
우리서로 스랑흐야 눈호이지 말지어다

— 「탄식가」 中.

우리본분 맛당흠은 오른삼강 불히면서
턴쥬명을 순히흐면 우리본분 이아닌가

— 「경세가 2」 中.

우리나라 늬존일만 흐다보니 먹켜가네
만만편야 가을일세 언제도로 춘식일고
지제목욕 괴도흐야 본국구원 흐사이다

- 「이원가(哀怨歌)」 中.

17) 만약 천주가사의 개념과 범주를 ‘천주교의 종교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좁게 설정한다면, 이러한 작품들을 천주가사라고 명명하거나 범주에 포함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경향신문』 소재 가사의 경우, ①작자가 대체로 천주교 신자라는 점, ②『경향신문』이 천주교의 기관지였다는 점, ③여러 작품이 천주교의 교리를 담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들 작품을 모두 천주가사라고 부를 수 있다.

위의 인용한 작품들은 부국강병으로 나아갈 것과 신교육사상에 대한 계몽 의지를 드러낸 작품이다. 「탄식가」에서는 천주교의 사랑이라는 계명을 통해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부국강병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으며, 「경세가 2」에서는 천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하면서 교육을 통한 계몽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 「익원가」는 국가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목욕재계하고 기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천주가사가 보여주는 이러한 우국이나 시세한탄, 현실비판의 면모들은 시기적으로는 1908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축소된다. 이는 1907년 7월과 1908년 4월에 실시된 신문지법(新聞紙法)¹⁸⁾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이후로는 현실참여와 관련된 주제를 대신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문명화 추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종교적 색채를 띤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초기 천주가사는 주로 ‘서학과 천주교에 대한 변호, 교리 지식의 전파’라는 종교적 목적에 충실한 것이었으나, 이 시기 천주가사는 이런 점은 점차 퇴색되어 사라지고, 교회 내적 문제에 대해서도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맞게 적극적인 현실 지향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국가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교세의 확장이나 교리 지식의 전달이 주된 문제였으나, 이 시기는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고, 일정한 교세를 형성하고 난 터라, 「예수성탄경축가」·「상이가(相愛歌)」·「명도강습찬송가」·「예수성탄경하가」 등 신앙고백적인 찬송류나 신앙 생활을 독려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등장한다.

셋째, 가사(歌辭) 작품의 단형화 경향이다. 종래 가사의 경우 분량과 길이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천주가사는 신문이라는 매체에 수록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분량과 길이의 제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18) 1907년 7월 이완용(李完用)내각이 법률 제1호로 공포, 실시하였고, 이듬해인 1908년 4월 29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 신문지법은 정기간행물 발행의 허가제와 보증금제로 발행허가를 억제하고, 허가받은 정기간행물도 발매·반포 금지, 발행정지(정간), 발행금지(폐간) 등의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 초기 천주가사인 「사향가」, 「삼세대의」 등은 양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대체로 20행을 넘지 않는 15행 내외의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혹 긴 작품들도 있지만, 그럴 경우 2~3회에 걸쳐 나누어 연재되었다. 단형화 양상은 단순히 분량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짧은 분량 속에서 작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말하려다보니 여러 문학적 수사 장치들은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대체로 내용 전달 위주의 직서 방식으로 작품이 구성되었다. 결국 이 시기 천주가사는 양적인 증가는 이루어진 반면, 작품의 문학적 성취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낮은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넷째, 『경향신문』으로 대표되는 전문 수록 매체의 등장으로 천주가사가 암송-음영물에서 시각적 독서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시기 가사가 신문에 실릴 것을 전제로 해서 창작됨으로써 ‘창(唱)·영(詠)’으로만 향유되는 본래의 장르적 본질을 잃었다는 점¹⁹⁾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시기 작품들이 교회 내적으로 갖는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암송-음영을 할 정도로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작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초기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 작품들을 살펴볼 때, 「삼세대의」는 천주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십계강론」은 십계명에 대한 교리를, 「사심판가」·「공심판가」·「천당강론」·「지옥강론」 등은 천주교회의 사후 세계에 관한 교리를, 「영세」·「견진」·「고해」·「성체」·「종부」·「신품」·「혼배」는 천주교회의 성사(聖事)의 개념을 각각 가사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가사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대중들을 위한 교리 교육과 전파의 효용성 때문이었다. 이는 초기 천주가사가 문학 작품이기에 앞서 교리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천주가사는 교회 내적으로 많은 신도들에 의해 암송되고 또는 기도 형식으로 읊어지던 음영의 양식이었다.²⁰⁾ 그러나 이 시기 『경향신문』과 이후에 등장한 『경향잡지』 등

19) 김대행, 「가사 양식의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3, 한국시가학회, 1998, 416~417면.
20) 최양업 신부의 천주가사는 시복자료본, 김동욱본, 김약슬본, 김문규가침본, 박동헌가침본

의 전문 매체에 수록된 천주가사들은 이미 매체에 수록될 것을 전제로 창작되었으며, 교리적 목적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천주가사가 교회 내적으로 갖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들이 퇴색되면서 시각적 독서물로 점차 전환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7.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의 지향

7.1. 신앙고백과 찬송,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

종교가사는 특성상 해당 종교의 교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천주가사는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고, 일정한 교세를 형성하고 난 뒤의 작품들이라 초기 천주가사에서 담당했던 교리 지식 전달 등의 목적에 충실한 작품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제는 성직자의 수도 증가하였고 곳곳에 천주교회가 건립되어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교리 지식에 대한 부분은 여러 교리 서적과 번역 서서의 발간·보급을 통해 그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 천주가사는 「예수성탄경축가」·「상인가(相愛歌)」·「명도강습찬송가」·「예수성탄경하가」 등 신앙고백적인 찬송과 신앙생활에 더욱 충실하고자 하는 내용의 작품이 등장하게 된다.

다행히다 우리들은 예수성탄 참여하야
 탄신목동 무리지어 흠피찬양 하여보세
 몰구유와 빈초막은 성탄하신 궁궐이며
 폭풍한설 오늘밤은 성탄하신 경절이며
 일편강보 기저귀는 예수아기 곤룡포며
 슈직하던 목동들은 구세주의 신하로다
 불상하다 외인들은 령혼눈이 어두어서
 예수성탄 몰나보고 허영잠락 도모하니

등 여러 종류의 필사본 이본이 존재한다. 이는 그만큼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암송되고 불리워졌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다.

다행하다 우리들은 예수씨친 표를쓰라
오관정옥 물니치며 삼스정리 굿이잡아
삼구승전 북을올녀 무궁턴당 도모호세

— 「예수성탄경축가」 中.

위 작품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처럼 신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가 누군지 성탄이 무엇인지 모르고 허영과 쾌락에만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스스로의 욕구를 절제하며 신앙생활에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다.

명도강습 취지서를 청년교우 드러보소
귀중하고 귀중하다 데칠일이 귀중하다
턴디만물 문드실제 룩일만에 세우시고
모이스의 십계주매 데삼계에 분부이오
오주예수 강상호샤 종도들의 그르첫네
세번증거 분명하니 귀중하기 막대호오
우리육신 연약함을 오주예수 솔피시샤
룩일만에 쉬게하니 감사하고 감사호오
육신심명 좇는날에 턴주공경 특히못히
주일날은 특별하게 턴주공경 하여보세

— 「명도강습찬송가」 中.

위 작품은 청년 교우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일(일요일)에 빠지지 말고 신앙생활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자는 성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하느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고 마지막 날은 쉬었듯이,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쉬면서 특별히 예수를 공경하며 신앙생활에 전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²¹⁾

21)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전통적인 음력의 10일 단위 생활유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양력의 7일 단위 인식 및 생활유형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인용한 천주가사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신앙에 대한 자신의 자기고백이나 찬송이 작품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던 바,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 충실하게 신앙생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7.2. 국권 침탈에 대한 비판적 현실 인식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향신문』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일반 상식이나 국내외의 소식, 법률상식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 시기는 국권피탈 과정 중의 혼란한 상황이어서 무엇보다 교회 내부적으로 신도들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꼭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경향신문』은 프랑스 신부가 대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07년과 1908년 일제에 의해 신문지법이 공포되어 여러 신문들이 사전검열을 당하고 또는 강제로 폐간되는 조치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 갈 수 있었다. 이 시기 천주가사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제의 국권 침탈 내용을 전파하면서 비판적 현실 인식의 면모를 드러낸다.

亞細東部 一隅國은 우리本國 아니온가
 大韓帝國 우리國이 要害處에 잇단말가
 北便에는 連陸호고 東西南은 帶海호야
 外國人의 出入호도 이도또호 極難이오
 …(중략)…

外國人이 我國와서 大韓人을 毆와가며
 月給만히 주마면서 大韓人만 골녀먹니

우리나라 挾雜姦人 紙錢張에 精神일허
 日兵의게 誣罔하여 衝火放포 忌憚업다
 익고답답 설운지고 이런일이 어디있나
 東洋西洋 諸各국에 이런일은 못드러니
 이력더럭 紛亂中에 우리義士 다죽엇고
 怪惡無道 東學黨은 大韓兩班 처업시고
 各地方에 陸賊水賊 富者들을 滅亡하고
 遊衣遊食 挾雜輩는 愚氓들을 속여먹니
 가엾도다 우리동포 늙은사름 몇히될가

— 「권학가(勸學歌)」 中.

위 작품에서는 앞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특히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해외로 팔아넘기고,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의 광산 등지로 끌여가는 등 일본 및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잠식하는 시대적 현상을 알리고 있다.

대한사름 참혹하나 어디가서 호소할가
 이도적을 방비안코 이협잡을 못금하면
 오래잔아 너나업시 죽을디경 만나겟네
 …(중략)…
 이리더리 생각하야 살계책을 츠즐적에
 언득므음 생각하디 벼슬이나 하자하나
 각부각읍 순검까지 돈나논것 일인츠지
 일인가져 왜그레나 벼슬인들 당홀소나
 모군이나 서자하나 일인모군 적지안네

- 「탄식가」 中.

위 작품은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이후 참담해진 나라의 현실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죽게 될 비참한

운명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통감정치의 시행으로 관직의 일부가 일본인들의 차지가 됨은 물론,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 경제가 서서히 잠식되어가는 상황을 알리고 있다.

괴가막혀 우리니각 나라솨이 엇더호오
큰집쓸너 남아감을 우에그리 조역호오
전치퇴락 말못되나 울과담은 놔앗더니
일쥬군인 희산흠은 억하심정 무순싱각
스스집도 울노막아 도적방비 아니흐나
울타리를 헐고보니 엇지그리 허전흐가
문을열고 담을문허 스방땡풍 밧잔말가
...(중략)...

대신대감 여보시오 대한골육 아니시오
무슴심장 무슴모음 본국폐망 웨조이오
얼마되면 대관자리 타국인이 다가지리
엇지그리 염통업소 본국스랑 그리몰나
본국인심 잘엇오 본국인심 스랑호오
아국산천 의구흐나 우리강토 어느계오
농토광산 만컨마는 우리지정 어더잇소
충신털스 업잔컨만 우리나라 웨이런고
유지의무 잇다건만 우리사회 업이업네
스지빅테 일반인데 우리동포 가공흐다
우리나라 놔존일만 흐다보니 떡켜가네
만만편야 가을일세 언제도로 춘식일고
지계목욕 괴도흐야 본국구원 흐사이다

- 「인원가(哀怨歌)」中.

주지하듯이, 1907년 고종의 헤이그특사 파견을 빌미삼아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통감에 의한 내정간섭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약을 강요했다. 그 결과 7월 14일에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일본인이 한국관리로 파견되는 차관정치(次

官政治)를 실현하여 온갖 실권을 장악하는 한편, 비밀리에 군대해산을 시도하였다. 위에 인용한 작품의 앞부분에서 작자는 군대해산을 언급하면서 나라꼴이 어찌하다가 이러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나면서 통탄하고 있다. 이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일본에 의해 사실상 합병되어가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작자는 얼마 후면 이제 나라의 대관 자리는 모두 일본인의 차지가 될 것이며, 우리의 국토는 물론 농토와 광산 등을 모두 빼앗겨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 점령당할 것임을 슬퍼하고 있다. 그러나 작자는 무기력한 조선의 모습을 향한 자조적 태도라도 보이려는 듯, 이러한 현실에 맞서 독자들에게 지극히 소극적인 주문을 하고 있다. 즉 목욕재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탄탄발가」는 과거 우리 정부에서 시행한 단발령을 비판하면서, 위생 관념을 칭탁한 허구적인 단발령에 대한 반포를 이제 중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우생가(愚生歌)」에서는 개화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개화 되면 살기 좋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현 상황은 전국토가 전쟁의 수렁 속에 빠져 백성들은 온갖 고생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산업구조마저 여지없이 무너져버렸다고 하며 무능한 정부내각을 비판하고 있다.²²⁾

7.3. 서양 문화에 대한 개방적 사고와 학교 교육의 강조

19세기 서양 세력의 동양 진출과 1860년 영·프 연합군의 북경함락 등으로 인해 서세동침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두려

22)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 천주교와 유사한 성격의 개신교가사가 보여주는 경향이나 지향은 어떠한가. 개신교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인 「앵산전도가(鶯山傳道歌)」(1915년 창작) 안에는 「지로가(指路歌)」、「상제애세가(上帝愛世歌)」、「회불급가(悔不及歌)」、「국화가(菊花歌)」、「낙원가(樂園歌)」、「심로가(尋路歌)」 6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개신교가사는 모두 자애로운 신의 형상이나, 지상낙원인 천국을 설정하고 설명하고 있다. 천주가사와 같이 현실문제나 계몽, 교육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앵산전도가」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고민정, 「앵산전도가 연구」, 장신대 석사논문, 1999. 참조.

움은 곧바로 서양 및 서학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으로 변하였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최제우의 『용담유사』 소재 「권학가」²³⁾와 신재효의 「갯심하다 서양 되놈」²⁴⁾이다. 당시 조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서양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이 곧장 서학과 천주교로 이어져 서양 학문을 배척하는 벽보와 서양인의 철수를 요구하는 벽보가 나붙는 등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천주교 내지 서양에 대한 배격의 움직임이 확산되었다.²⁵⁾

종교의 자유가 확보된 이후, 동학농민운동의 시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천주교회는 이후 서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시키는 한편 신식 학문을 도입하여 활발히 사회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또 국권침탈의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교육을 통한 문명개화임을 역설하고 있었다. 이 시기 천주가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내용은 ‘학교설립-교육-문명화’에 관한 것이다.

學校만히 創設호야 各사람의 子孫들을
 學校에로 보내여서 工夫修業 시기시오
 工夫修業 아니호면 穢만가지 다가저도
 쓸디업서 莫可奈何 이런거슬 싱각호오
 歐羅巴와 亞弗利加 文明野蠻 分別보오
 男女老少 同胞들은 이내말슴 드르시오
 별말말고 오늘브터 學文에만 힘을쓰오
 文明國民 되올法은 학문받게 업스리다

— 「勸學歌」 中.

23) 호원갑 경신년의 전희오는 세상말이 / 요망한 서양적이 등국을 침범히서 / 텃쥬당 노피 세위거 쇼위 호는 도를 / 텃호의 편만호니 가쇼 절창 안일년가 - 『용담유사』 「권학가」 中.

24) 갯심하다 서양 되놈 / 무부무군 천주학은 / 네나라나 할것이지 / 단군지즈 동방국의 / 효제 울리 붙었는디 / 어히감히 여어보자 / 흥병 ㄹ히 나왔다가 / 방슈성 불에 타고 / 정족손성 중에 죽고 / 남은 목숨 도싱호자 / 어서어서 도망호자 예용예용 -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민중서관, 1971.

25) 조광, 「19세기 후반 서학과 동학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2003.

곳곳마다 학교설립 기명이즈 웃듬이라
 장스하야 부국되고 공부하야 강병되면
 우리강도 삼천리요 우리동포 이천만인
 늑의손에 맞겨두며 늑의노예 되올손가
 구미렬강 부강함과 영법덕의 문명함은
 쇼대학교 터를다가 청년즈데 기초삼아
 권학가와 권농가를 높히불너 발달이오
 파란이급 미약함은 모든학문 몽미하고
 청년즈데 새를일허 허송세월 툃이로다

— 「인국권학가 1」 中.

다룬計策 쓸디업소 이내말슴 드르시오
 오늘부터 始作하야 죽드라도 힘을써서
 靑年子弟 인도하야 學文卒業 시기시오
 處處學校 設立하야 男女靑年 勿論하고
 ㅎ나라도 썩지말고 몰수히다 ㄱ르치디
 …(중략)…

學文修業 第一힘써 우리大韓 바로잡세
 三千里의 二千萬人 學文修業 힘써보세
 學文外에 銀金寶貨 쓸디업는 물건이니
 모든同胞 모든同胞 學文修業 힘쓰시오

— 「망본국태평가(望本國太平歌)」 中

첫 번째 「勸學歌」에서는 학교를 많이 세워서 자제들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온갖 것을 다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작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아프리카를 문명-야만의 구도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교육에 있음을 지적한 후 우리도 문명국이 되려면 학문에 힘을 써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인국권학가 1」에서도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는 학교를 설립해서 개명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을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작자

는 구미열강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부강하고 문명화 된 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이며, 반대로 폴란드나 이집트가 국력이 미약한 것은 모두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학문도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거듭된 문명화된 국가와 약소국을 대비적으로 드러내면서 작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자명하다.

세 번째 「망본국태평가(望本國太平歌)」에서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다른 계책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며 오직 교육만이 그 해결책을 역설한다. 작자는 특히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동포들이 학문에 힘을 써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듯 이 시기 천주가사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한 문명 개화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작품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교육은 결국 서구식 학교 제도이며, 서구의 과학 기술이다.²⁶⁾

교육호세 교육호세 청년즈데 교육호세
 서양문명 고등법률 연구안코 엇지호리
 …(중략)…

가련호오 가련호오 구습동포 가련호오
 텃상국에 맞치려고 상투뿔들었는가
 저 | 혼자 호는말이 외국교제 아니홀것
 머리털을 단발호고 모즈쓰고 양복넘은
 더이들의 호는말은 청년교육 바비히서
 고등법률 동헌후에 문명국이 되여보새
 개탄호고 한심호오 구습인물 엇더호오
 유오청년 우리들은 완고인물 동여다가
 오대주에 데일강산 태평양에 던져보새

— 「제목없음 1」 中.

26) 「內地測量歌」에서는 서양식 측량의 이점과 그러한 측량기술이 있는 현시대를 찬양하고 있다.

위 인용된 작품에서는 이 시기 천주가사에서 그토록 주장하는 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위 작품에서는 청년 자제들에게 서양 문명과 고등 법률을 교육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서양문명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며, 고등 법률은 여러 가지 사회 체제나 제도, 법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자는 특히 남들은 개명, 개화를 의미하는 단발과 모자, 양복입고 신식교육을 받는 데, 과거의 문화전통에 젖어 새로운 문명을 거부하는 동포들을 가련히 여기면서 그들이 상투를 소중히 여기고 외국과의 교제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비웃고 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화 수용을 강조하면서도,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한 인물들은 태평양에 던져버리자고 강도 높은 어조를 보이고 있다.

삼천여지 우리나라 만세태평 보랏더니
 문호지방 오늘날에 의심병이 싱겨나서
 순량지심 다버리고 허무괴설 잠이깊다
 …(중략)…

경향신문 론설지담 이목뵈히 열어노니
 인국지심 분발되여 곳곳마다 학교설립
 비호느니 학문이오 힘쓰느니 실업이라
 의리지심 도로오고 지혜총명 절노나서
 넷정신을 회복흔니 오륜지도 다시붙아

— 「상인가(相愛歌)」 中.

위의 인용문에서는 서구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문호 개방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의구심 때문에 사람들이 서구 문명은 결국 우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허무괴설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경향신문』 같은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곳곳에 학교를 설립하여 사람들이 학문을 배울 수 있게 함은 물론, 생업에도 힘

쓰게 하고 있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법은 서구를 모델로 한 교육과 문명 개화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와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7.4. 새로운 인간관계 및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확산

전통적인 신분 질서 속에서 개별 주체들에 대해 평등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조선사회에서 동학과 서학은 각각 평등적인 신분질서를 제시하며 민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갑오경장 이후 종래 양반-중인-평민-천민의 신분 질서는 제도적으로는 무너졌지만 수백 년을 지속되어 온 관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천주교는 입교를 하면 하느님 아래에 모두가 형제요 자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분을 본위로 했던 당시 사회 체제를 거부하고 신앙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 및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 나갔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통되는 공식문서는 물론 천주가사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도 의도적으로 형제·자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의식을 다져갔다.

스랑흐은 데형들아 노지말고 버러보세
애톨써서 별거시오 쏘을내여 버러다가
쳐즈권속 보호흐고 부모봉양 흐사이다
황태관장 부모친척 스랑흐야 공경흐고
우리나라 스랑흐야 즈모로써 섬겨보세
외겍술은 언약흐고 삼겍술은 견고흐니
스랑으로 스랑흐야 동포형의 미즈보세
스랑으로 미즌줄을 어느늬가 끈홀쇼냐
스랑업시 부국강병 아니되니 스랑흐세
스랑스랑 이쥬이인 데일가는 스랑일세
우리서로 스랑흐야 눈호이지 말지어다

위의 작품에서는 ‘사랑하는 제형(諸兄)들아’라는 말로 호칭을 시작하여 교회의 가르침인 사랑으로 동포간에 형제와 같은 의리를 맺자고 말하고 사랑하여 나누어지지 말자는 당부를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 처럼 사랑하고 합심을 통해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의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사름 사랑하고 웃사름을 공경하나
사랑함도 두가지요 공경함도 두가지라
외면으로 사랑하면 춤스량이 못될지며
외면으로 공경하면 춤공경이 못될지라
인인덕을 사랑함은 춤스량이 될것이오
공순덕을 공경하면 춤공경이 될것이라
공경스랑 이긋으면 화목엇지 업슬손가
화목하고 보게되면 단테덕이 나오리라
단테하고 보게되면 대소스를 잘흐리라
대소스를 잘흐면은 문명덕이 나오리라
문명덕을 하고보면 국부병강 나오리라

위 작품에서는 사랑하고 공경하면 ‘단체덕(團體德)’이 나온다고 하였다. 단체덕은 단결하는 덕행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 즉 ‘단결’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단체덕이 나오면 대소사를 잘하고, 문명덕이 나오게 되고 끝내는 부국강병이 나올 것이라는 연쇄적인 사고 논리를 펼치고 있다. 결국 참사랑과 참공경으로 합심을 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 방식은 전통적 유가 사상에서 보이는 인간관계상과는 차별적인 것이다.

여타의 작품에서도 형제, 청년, 동포, 국민, 대한 등을 지칭하면서 ‘사랑하온-’, ‘우리-’라는 수식어가 일상적으로 붙는다. 결국 교회라는 공간을

구심점으로 한 사랑이라는 이념을 매개로하여 단결하는 새로운 인간관계 및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8. 결론

본고는 천주가사에 대한 연구 지평을 확장하고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화기 이후 천주가사의 전개 방향과 변모 과정을 추적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 판단하고,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간행된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가 지닌 특성과 지향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초기 천주가사는 이벽, 정약전, 최양업 등 당시 천주교회의 수장격인 소수의 학자 혹은 신부의 손에서 직접 창작되었으며, 그 창작 목적은 천주교의 전파과정상의 시대적 요구와 목적에 충실한 것이어서 작품 내용도 천주교 주요 교리 이외의 것으로 확장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는 형식적인 면에서 단형화를 이루면서 작품의 양적인 증가와 작가층의 확대, 그리고 전문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내용 및 주제가 다양해지게 된다. 그 결과 이 시기 천주가사는 이전 시기에 비해 교리적 목적이 퇴색되어 암송-음영물로서의 성격이 줄어들어 시각적 독서물로 점차 변화하였다.

한편, 이 시기 천주가사의 내용은 신앙고백 및 찬송, 애국계몽, 우국 및 시세 한탄, 경세(警世), 학교 설립 등 신문명에 관한 것 등으로 다양해진다. 이 가운데는 당시 『대한매일신보』 등 이 시기 다른 매체에서 보여주는 주제적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차별적인 것은 『경향신문』의 작품들은 위의 현안문제에 대해 천주교의 교리나 가르침을 통한 종교적인 해결 지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시기 『경향신문』 소재 천주가사의 지향은 크게 신앙고백과 찬송,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 국권 침탈에 대한 비판적 현실 인식, 서양 문화에 대한 개방적 사고와 학교 교육의 강조, 새로운 인간관계 및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확산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국권침탈 과정에 대한 비판적인 현실 인식의 면모나 서양 문화에 대한 개방적 사고를 촉구하고 학교 교육을 강조한 부분에서는 천주교가 당시 급박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현실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경향신문』은 치외법권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었으며, 신문에 수록된 천주가사 작품들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참고문헌〉

『京郷新聞』

『용담유사』, 癸巳刊.

『천주가사 자료집』 上·下,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0.

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민중서관, 1971.

고민정, 「앵산전도가 연구」, 장신대 석사논문, 1999.

김대행, 「가사 양식의 문화적 의미」, 『한국시가연구』3, 한국시가학회, 1998.

김옥희, 『최양업신부의 천주가사』 I · II, 계성출판사, 1986.

김중희, 「개화기 천주가사의 세계」, 『현대문학이론연구』2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김진소, 「천주가사 사상 연구 시론」, 『최석우 신부 회갑기념 한국교회사논총』,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김진소, 「천주가사의 연구」, 『교회사연구』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1.

김학동, 『한국 개화기 시가 연구』, 시문학사, 1981.

박을수, 『한국 개화기 저항시가 연구』, 성문각, 1985.

심재근, 「천주교가사연구」, 『국어국문학연구』8,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2.

오숙영, 「천주교 성가가사고-최도마 신부의 성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71.

이경민, 「천주가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1997.

조 광, 「19세기 후반 서학과 동학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2003.

조 광,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조동일, 「가사에서 전개된 종교사상 논쟁」, 『한국 시가의 역사 인식』, 문예출판사, 199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지식산업사, 2005.

조신형, 「조선후기 천주가사에 관한 신학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

1994.

진연자, 「천주가사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1992.

최동희, 『서학에 대한 한국 실학의 반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최필선, 「초기 한국 가톨릭 교회 음악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1989.

하성래, 「천주가사의 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84.

하성래, 『천주가사 연구』, 황석두루가서원, 1985.

홍일식, 『한국 개화기의 문학사상 연구』, 열화당, 1980.

〈Abstracts〉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Intention of Catholic-Gasa in Kyunghyang daily newspaper between 1906 and 1910

Cho Ji H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tholic-Gasa[天主歌辭] in vol. 41, 『Bogam(寶鑑)』, 『Kyunghayng daily newspaper[京鄉新聞]』 published between 1906 and 1910, an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intention represented by the Catholic-Gasa in those periods. This study, based on those investigation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change pattern of the Catholic-Gasa and examined some aspects of Catholics of those periods in terms of perception of reality and social activities.

It was considered, as a result of discussions, that the Catholic-Gasa in 『Kyunghayng daily newspaper』 (1) expanded the range of author

and increased the amounts, (2) made contents and subjects to being various, (3) tended toward single pattern, and (4) shifted to visual reading materials.

The Intention of the Catholic-Gasa in 『Kyunghayng daily newspaper』 was (1) confession of faith and hymnals, advice on the religious life, (2) critical perception of reality due to the national right pillage, (3) open-hearted thoughts on the Western cultures and emphasis on the education within school, and (4) the formation and diffusion of new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nse of community.

The critical perception of reality concerning the process of pillaging national right, the encouragement on the open-hearted thoughts on the Western cultures, and the emphasis on the education within school shows clearly the position on the actual issues and the social role of Catholic in the period of urgent history.

It is estimated that the 『Kyunghayng daily newspaper』 intervened actively in current social issues and voiced their own, therefore, that the Catholic-Gasa works in it also showed such strong tendency.

Key Words : Catholic-Gasa[天主歌辭], Western learning[西學], Catholic, Kyunghyang daily newspaper[京鄉新聞], Bogam(寶鑑), national right pillage, perception of reality.

이 논문은 2008년 12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1월 2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